



한우값 안정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 한우자조금, 위기를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한우산업은 자조금 시행이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법제화, 유통감시제 도입, 생산이력추적제 구비, 한우판매인증점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 국내산 육우와 한우는 다르다는 정보전달,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라는 한우에 대한 이미지 차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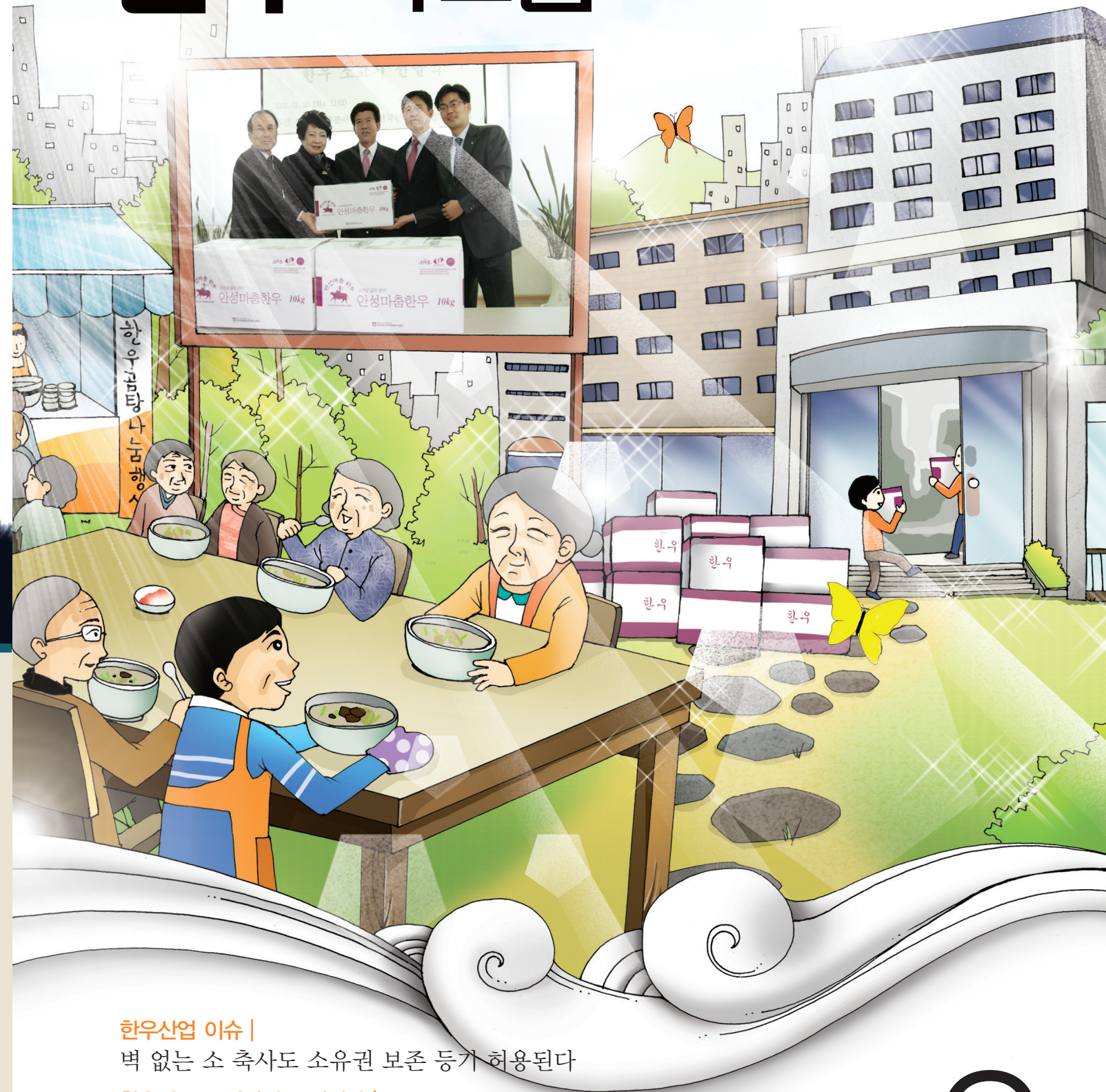
● 한우생산농가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료값 급등,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 둔갑판매 등 한우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한우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한우자조금 사업방향

- 한우소비 활성화로 소값 안정 실현
-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 한우의 우수성과 차별성 홍보로 시장확보

한우 자조금



한우산업 이슈 |

벽 없는 소 축사도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된다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기축년 한우사랑 경품대축제
전국 한우사랑 나눔행사 개최

한우의 기원과 역사 |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소’ 자료의 분석

“힘내라 대한민국” 한우사랑 나눔행사

한우농가, 소외계층 돕기에 나섰다

「‘힘내라 대한민국’ 한우사랑 나눔행사」가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열려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농가의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는 도별 지자체와 연계하여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고기, 곰탕 등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고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곰탕 등을 제공했다.

행사를 담당한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차장은 “기축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우리 국민과 소외된 계층에 힘을 북돋아 주고 한우농가의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각 지역별 행사를 지면에 소개한다.

경기도

28개 복지시설에
한우 보양세트 450kg 전달



경기도지회(도지회장 우영목)는 1월 20일 시가 2천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보양세트(사골, 우족, 사태고기 등) 450kg을 도내 아동양육시설 28개소 약 2천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마련해 각 시설에 전달했다.

강원도

복지시설에
한우 고기 전달 온정 나뉨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도지회장 김명재)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원주축협은 1월 21일 원주시 호저면 장주기요셉 재활원 등 복지시설 3곳을 방문, 한우사랑 나눔행사를 갖고 불고기와 곰탕용 한우 200kg을 전달했다.



충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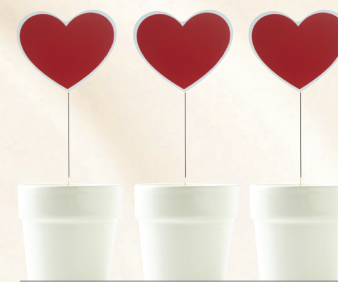
사회복지단체에
620kg 한우고기 전달

충북도지회(도지회장 조위필)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총 620kg의 한우고기를 ‘나눔의 집’, ‘성심맹아원’ 등 시군지역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충남도

11개 시군별
한우국거리 2천만 원 상당 전달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도지회장 김영길)가 한우사랑 나눔행사를 통해 복지시설에 한우고기를 지원했다. 충남지역 한우사랑 나눔행사는 11개 시군지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전달된 한우국거리는 총 2천만원 상당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농가의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



전북도

29개 복지시설에
750kg 한우나눔 행사

전북도지회(도지회장 박승술)는 전북 한우 광역브랜드육 750kg을 29개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한우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박승술 도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한우사랑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33곳 시설에
한우불고기 기탁

전남도지회(도지회장 김남배)는 설명절을 맞아 한우사랑 나눔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전남지역 소재 사회 복지시설 33곳에 한우불고기 633kg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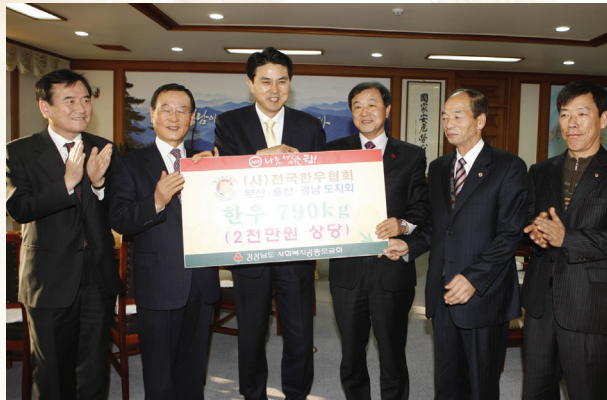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에
한우고기 1t 전달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도지회장 전영한)가 설을 앞두고 2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한우 고기 1천kg을 전달했다. 경제 위기로 기업체 등의 지원이 줄어든 대구와 경북지역 50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경북도지회는 한우자조금으로 500kg을 대구광역시에 전달하고 자비로 500kg을 추가로 경북도에 전달해 더욱 의미가 크다.



제주도

불고기 · 국거리 등
한우 사랑 나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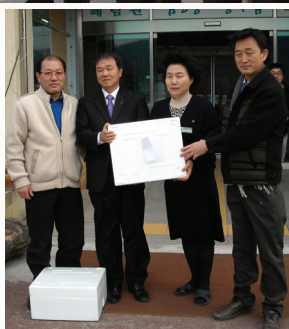
제주도지회(도지회장 김권호)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불고기와 국거리용 한우 160kg을 전달했다.



경남도

2천만원 상당
불고기 기증

경남도지회(도지회장 정호영)는 1월 22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한우고기 지원의 뜻을 밝혔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정호영 도지회장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정육을 기증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로 전달하고 “어려운 한우농가들이 기증한 한우고기를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우도 먹고 무한행운도 받고~ 「기축년 한우사랑 경품 대전치」



(사)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의 대형 유통매장 판매시작 및 호주산 유통매장 등의 점유율 확대 등과 같은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한우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이자 한우 소비량이 최대기인 기간동안 2,500여개 한우 유통점에 3만원 이상의 한우를 구입하는 소비자 5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복권을 지급하고 온라인으로 추첨해 경품을 증정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협회는 2500여개의 한우판매점, 유통점을 선정해 한우의 판매량과 점유율을 높이고 한우의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다양한 경품을 수령하기도 했다.

협회는 온라인 추첨방식으로 진행해 1등 한우형 순금30돈(1명), 2등 명품 PDP TV(2명), 3등 드럼세탁기(5명), 4등 한우 갈비세트(40명), 5등 한우실속세트(75명), 6등 롯데리아 한우버거세트(1200명), 7등 한우캐릭터가방(3만명), 8등 한우액정클리너(2만명) 등 총 5만1천323명에게 경품을 지급해 명절을 맞은 소비자들의 한우사랑에 보답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산 쇠고기가 값싼 가격으로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하고, 호주산 쇠고기도 유통업체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시식 등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우와 함께 고향길 가세요~

지상파DMB 1to1과 설 연휴 '새해맞이 희망 릴레이' 캠페인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홍보를 위해 지상파 DMB 1to1(원투원, 대표 김경선)과 설 연휴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새해소망을 담은 '2009 새해맞이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협회는 “설 연휴기간동안 귀성인파를 대상으로 지상파 DMB 시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동시간이 많은 기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우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띠 해 2009’ 전국에 한우 관심 ‘깡충’

소의 해를 맞아 TV, 신문, 잡지 등에서 한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되었던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들의 소에 대한 관심은 한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방송 등에 한우에 대한 협찬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명절 기간 중 방송되었던 SBS ‘TV 로펌 솔로몬’에 한우고기를 협찬을 비롯해 SBS ‘좋아서’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우 만들국을 협찬하여 명절음식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KBS ‘상상플

러스’에도 한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띠 해에 대한 관심은 한우자조금의 협찬과 무관하게 방송사 및 언론사

측에서 직접 진행된 것

이 더 많았으며 소띠해 설날을 맞아 적극적으로 방송이 이뤄졌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잡지, 신문 등에도 한우관련 기사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한우의 안전성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선호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면서 2009년 한우 소비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탑승객, 한우광고 본다

우리도, 한우도 대한민국 태생입니다!

같은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와 한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한우!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2008년 5월 29일 송승이 생일날
2008년 5월 29일 송승이 생일날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 ▲ 지하철역사에 게재되고있는 한우광고
- ▶ 2호선 을지로입구역의 스크린 도어에 게재되고 있는 한우광고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내에 한우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월부터 4월까지 약3개월동안 지하철 와이드칼라 22개와 스크린도어 6기에 한우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지하철에 게재될 한우광고 시안은 “우리도 한우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시안으로 같은 땅인 대한민국에서 자란 한우를 식탁위의 국보이자,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켜나가자는 뜻을 담았다.

지하철 광고 게재지역은 다음과 같다.

▶ 와이드칼라 : 교대, 대치, 남부, 목동, 여의도, 방배, 잠실, 매봉, 종로3가, 시청, 선릉역, 한티역, 도곡역, 김포공항, 영등포, 개포역, 대모산

▶ 스크린도어 : 교대-외선-12A, 을지로입구-내선-21B, 선릉-외선-22B, 을지로3가-외선-34C, 합정-내선-9B, 영등포구청-내선-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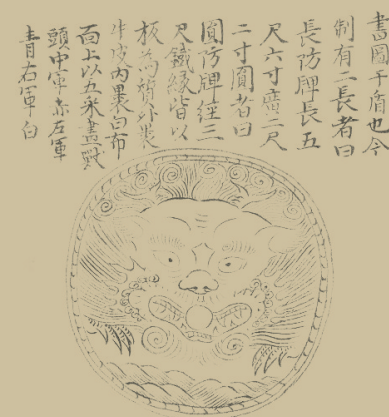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소’ 자료의 분석

- 김호동 교수 -

전국한우협회는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이자 문화로서의 한우를 재조명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한우자조금 연구조사사업으로 ‘한우의 기원과 역사’를 진행하고 2008년 12월 19일 영남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최종 연구보고 세미나를 열었다.

기축(己丑)년 소띠 해에 한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 연구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원고심는 순서

1월 고종제 사서류에 나타난 한우의 특성 - 위은숙 2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소 자료 분석 - 김호동 3월 민속문화와 한우 - 이창연

조선조부터 소 사육서 편찬 보급 시작

조선시대의 실록이나 문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소가 적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홍양호(경종4~순조2)는 그것을 ‘생산이 번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육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리기를 그의 성질대로 하지 못해서’라 했다. 허균이 1610~1617년 사이에 편찬한 ‘한청록’은 농서로서, 그 속에 양우(養友)편이 포함되어 있지만 질병발병시 간단한 응급처리법과 절절한 휴식 관리 이외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홍만선의 산림경제(1642~1715) 역시 휴식관리 위주의 지식만을 익히고 있었을 뿐, 홍양호의 지적처럼 사육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한국의 풍토 소 사육에 적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풍토는 우축의 번식에 적당했다. 특히 조선왕조 500년에 걸친 우역과 전란을 거쳐 소의 손실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우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풍토 자체가 소사육에 대단히 적절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세계화 시대 한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품으로 육성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소의 종류는 고려시대 의례에 사용됐던 청, 백, 적, 흑, 황색의 소가 역시 의례용 소들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선시대의 의례용으로 흑우와 황우를 사용했다. 북방개척에 적극적이었던 세종조나 성종조에서는 군사적 목적 때문에 물소의 번식에 적극적이었지만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중종조부터 물소에 대한 정책이 변화됐다.

중종조에서는 물소가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가 없으니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섬으로 추방됐으며 민간에게 나눠주기에 이르렀다. 우리 땅의 소산이 아닌 물소의 생육에 우리나라의 풍토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살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요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농경과 관련된 소의 표현이 술하게 나온다. 농경에 있어서 소는 특히 경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는 농우로서 사용가치가 커 식용을 위해 사육되지는 않았다. 실록의 소에 관한 자료 가운데 도살금지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고, 그 대부분이 농우의 부죽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았다.

농경과 관련 도살을 금하는 금령이 많다는 것 자체는 상당수의 소가 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식용을 위한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정육점인 ‘현방’은 국가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공식 가게로서 시전에 속한다. 서울에 현방은 23곳이나 되지만 ‘실록’에는 곳곳에 밀도살 금지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쇠고기 수요가 얼마만큼 많은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는 운송은 물론 소똥, 뿔, 힘줄을 활용한 무기류 등으로 활용됐고 무역은 물론 약재로서 활용도 또한 높았다.

“쇠고기 유통환경 투명화로 한우산업 돕겠다”

김상민 강원도지회 사무국장 ‘농관원 우수명예감시원’ 표창

한우사랑 유통감시원으로 활동중인 김상민(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33세)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이재현)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2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달에 4~5일씩 동행 출장을 가며 강원도 전역에서 유통감시활동을 해왔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1일 혹은 1박2일씩 유통감시를 했지만 지난 7월 쇠고기 기동단속반이 생기면서 2박3일에서부터 일주일 내내 출장을 다니며 쇠고기 유통단속에 힘써왔다.

김 사무국장은 “강원도내 정육점은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거의 고칠 점이 없으나 아직 등급판정서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면서 “쇠고기 기동단속반으로 합동단속

을 할 때 음식점이 원산지 규정을 지키기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둔 합동단속기간에만 강원도 권역 내 6곳의 쇠고기 둔갑유통을 적발했다는 김 사무국장은 호주산을 한우로,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일반한우를 형성한우로 둔갑한 사례 등 6건을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으로 적발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우산업이 많이 어려운만큼 유통감시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 쇠고기 유통환경이 투명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통감시단 도지회별 활동 내용

기간 : 2009년 1월

도지회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총계	
감시원활동(명)		1	1	2	1	1	1	2	3	3	15	
부감시원활동(명)		20	11	6	4	6	3	8	9	10	77	
활동일수		100	60	40	22	37	22	42	55	49	427	
1일 평균 활동업소수		8.2	7.7	5.2	8.8	10.3	8.0	7.1	6.1	8.2	7.7	
합동단속일수		8	11	11	5	4	3	2	0	1	45	
정육점 등 유통업소	활동업소수		99	62	109	100	159	17	100	237	1,030	
	등판서 미비치		11	8	10	0	10	1	29	11	84	
	원산지 미표시		3	1	0	0	2	1	1	16	25	
	축종 미표시		3	1	0	0	5	2	3	8	23	
	부위명 미표시		2	1	0	1	3	1	0	19	27	
	등급 미표시		9	7	0	11	32	3	32	48	148	
	용도 미표시		8	2	0	3	8	3	0	26	51	
	개체번호 미표시		0	0	0	0	0	5	23	58	86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활동업소수		716	397	97	93	221	159	200	101	2,241	
	원산지 표시	일부 미표시	17	13	1	0	0	0	0	4	7	42
		전부 미표시	3	4	0	0	0	0	3	2	9	21
		허위 표시	0	1	5	0	1	0	0	0	1	8
	축종 표시	일부 미표시	28	13	1	0	0	1	5	9	5	62
		전부 미표시	8	8	2	0	2	0	13	2	12	47
		허위 표시	0	0	0	0	0	0	0	0	0	0
	거래명세표미보관		103	39	7	0	7	14	8	11	33	222
	등급판정서미보관		150	69	12	8	58	87	111	28	48	571
	도축증명서미보관		155	70	12	9	62	85	112	30	51	586
	수입산증빙자료미보관		351	191	41	1	60	8	12	18	15	697

15개 한우음식점 대상 한우판매인증점 2차 심사

1월19일~26일까지 현장방문 운영실태 점검



2009년 1차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총 19개 업소가 신청해 서류심사 결과 2개소가 불합격, 2개소가 신청을 취소하여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총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시작한다.

현장심사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1개소), 강원(1개소), 충북(4개소), 대전(1개소), 충남(1개소), 전북(1개소), 대구(2개소), 부산(3개소), 경남(1개소)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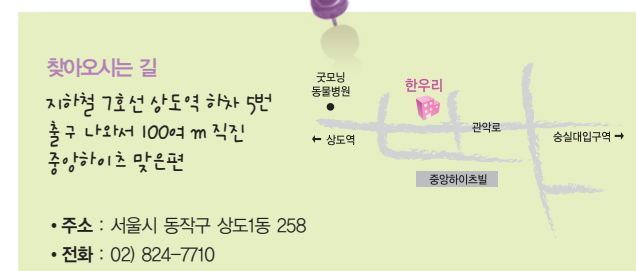
협회는 도지회장 및 추천인 1명, 인증관리요원 1명, 심사대상 업소 시군지부장, 사무국장으로 현장심사팀을 구성하고 중앙회 유통관리팀 3명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판매인증점 탐방 한우리

부위별로 골라먹는 재미와 함께
값은 싸게 양은 푸짐하게 즐기는 특별한 감동

한우판매인증점 ‘한우리’에 들어서면 먼저 정육 코너가 눈에 들어온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부위별로 한우 고기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값이 매우 싸다는 사실이다.

“일반 서민들이 한우 고기를 즐기려면 먼저 비싸다는 생각에 섰듯 한우 먹을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싸고 맛있는 한우 고기집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지요.” 듄직한 체구의 김영석 대표의 말처럼 한우리의 한우 고기값은 다른 곳에 비해 싸기도 하거니와 그 양 또한 매우 푸짐하다. 그래서 한 번 찾아온 손님들은 무조건 단골이 된다. 점심 시간대에는 뷔페식으로 제공되는데, 부위별로 골라먹는 재미와 함께 유통과정의 가격 거품을 빼내어 값은 싸게 양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사육두수 229~233만두, 산지가격은 375~398만원 2009 한우사육과 쇠고기 수급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육우 축산업증 생산액 11조3천억원, 30.8% 차지

축산업 생산액은 1997년 6조9천억 원에서 2007년 11조 3천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의 비중은 1997년 23.5%에서 2007년 32.5%로 상승하였다. 2007년 축산업 중 한육우는 30.8%를 차지하였으며 돼지 29.4%, 우유는 13.8% 육계는 9.1%, 계란은 7.6%로 나타났다. 한우는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수입 재개 및 도축두수 증가로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며 소비 심리 회복으로 쇠고기 소비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3만톤의 쇠고기가 수입되고 2010년부터 한미 FTA가 시행되는 것을 가정하고 DDA 개도국/선진국 지위 획득 여부와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에 따라 시나리오 I, II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 2009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29~233만두, 산지가격은 375~398만원대로 전망되며, 2019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32~241만두 산지가격은 419~434만원대로 전망된다.

한육우 사육의향 변화

- 2008년 3~11월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대비 4.4% 감소(154만 스트로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9월 송아지 생산두수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들어 암소 사육·비육 경영지수는 상승하고 암소 도축은 증가했다. 이는 암소 비육이 송아지 생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송아지 생산

은 감소하고 암소 도축 물량은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산업

- 농업관측센터에서 818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15.8%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26.0%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2009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산 쇠고기 구입시 어떤 육류의 소비량을 줄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의 18.2%는 국내산 한육우 고기를, 31.1%는 기타 수입쇠고기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돼지고기”를 7.1% “닭고기” 1.5% “줄일 생각없음”이 42.0%로 조사되었다.
- 미국산 쇠고기 지불의향금액은 8,194원/600g, 호주산 쇠고기 지불의향금액 11,000원/600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광우병 논란으로 위축되었던 쇠고기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2009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200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0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될 경우

쇠고기 전체 수입량은 최소 23만 톤에서 최대 27만톤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 시장을 우선적으로 잠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210만두 이하로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한육우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을 23만톤으로 가정한 기본안의 경우, 2009년 한우(600kg) 수소 산지가격은 2008년보다 2.1% 상승한 398만원으로 전망되며 2014년 429만원, 2019년 434만원으로 전망된다.
- 시나리오에 따라 2009년 한우(600kg) 수소 산지가격은 2008년보다 1.0~3.9% 하락한 375~387만원으로 전망되며 2014년 414~422만원, 2019년 419~427만원으로 전망된다.

〈표〉 시나리오별 가정

	주요내용	추가 가정
기본안	• 한미 FTA 타결 내용을 2010년부터 이행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	2009년 쇠고기 수입량 23만톤 가정
시나리오 I	• 한미 FTA 타결 내용 기본안과 동일 • DDA에서 개도국 지위를 획득하여 2011년부터 이행 (현행 쇠고기 관세율 40%를 2011년부터 35%로 고정)	2009년 쇠고기 수입량 25만톤 가정
시나리오 II	• 한미 FTA 타결내용 기본안과 동일 • DDA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2011년부터 이행 (현행 쇠고기 관세율 40%를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17.2%로 단계적으로 감축)	2009년 쇠고기 수입량 27만톤 가정

▶ 한육우 사육두수에 미치는 영향

- 기본안의 경우 2009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33만두로 2008년의 243만두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1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뒤, 2012년부터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2014년 229만두, 2019년 241만두로 전망된다.
- 시나리오에 따라 2009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29~232만두로 추정되며, 감소세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년부터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2014년 221~226만두, 2019년 232~238만두로 전망된다. 사료가격 하락 전망 및 입식 대기 수요로 한육우 사육두수가

▶ 쇠고기 수급전망

- 2009년 한우고기 생산량은 21만5천~21만6천 톤으로 전망되며, 2014년에는 19~20만톤, 2019년에는 20만5천~21만9천톤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2009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9.2~9.8kg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는 10.9~11.8kg, 2018년에는 12.7~13.3kg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 자급률은 2009년 45.1~48.5%로 예측되나 이후 수입량 증가로 쇠고기 자급률은 점차 하락하여 2014년 32.8~37.2%, 2019년 31.3~35%로 전망된다.

〈표〉 쇠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단위 : 천톤(정육기준)

		2008 (추정치)	전망		
			2009	2014	2019
			기본안~시나리오II	기본안~시나리오II	기본안~시나리오II
공급	전년이월	40	45	63 ~ 73	79 ~ 87
	생산	191	216 ~ 215	200 ~ 190	219 ~ 205
	수입	224	230 ~ 270	342 ~ 394	409 ~ 452
	계	455	492 ~ 530	605 ~ 657	706 ~ 744
수요	국산소비	191	216 ~ 215	200 ~ 190	219 ~ 205
	수입소비	219	230 ~ 263	338 ~ 390	407 ~ 450
	차년이월	45	46 ~ 52	67 ~ 78	81 ~ 90
	계	455	492 ~ 530	605 ~ 657	706 ~ 744
총소비		410	446 ~ 478	538 ~ 579	625 ~ 655
자급률(%)		46.6	48.5 ~ 45.1	37.2 ~ 32.8	35.0 ~ 31.3
1인당 소비(kg)		8.4	9.2 ~ 9.8	10.9 ~ 11.8	12.7 ~ 13.3
한우수소600kg 산지가격(만원)		390	398 ~ 375	429 ~ 414	434 ~ 419

주) 자급률=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 쇠고기 총 소비량,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 검토

“미 쇠고기 판매불허” 반복해 시민·농민 반발 예상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들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상반기 중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력사들과 준비작업을 협의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판매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3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대형 마트 3사가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것처럼,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이 판매를 시작하면 다른 백화점들도 같은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할 당시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하지 않겠다’던 백화점이 곧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하면, 많은 시민, 농민단체를 비롯 한우농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

쇠고기·낙농 ‘직격탄’...축산농가 ‘벼랑끝’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반대 기자회견



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법적 절차다. 따라서 공청회가 열렸다는 것은 곧 이들 국가들과 FTA 협상을 선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사장 밖에서는 ‘한미FTA 농축수산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한-호주·뉴질랜드FTA공청회 개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축산단체협의회장)은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는 낙농육우산업을 말살시키려는 것”이라고

지난 2월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농민들의 절규에도 아랑곳 없이 ‘한-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추

주장했다.

“호주·뉴질랜드... 쇠고기 농업강국”

호주와 뉴질랜드의 농업경쟁력 중 축산분야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호주의 경우 인구는 2100만명이지만, 사육중인 소는 2800만마리(2007년 기준)에 이른다. 연간 220만톤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청석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시장 자체가 작고, 관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FTA로 인한 실익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줘야 하는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시장규모가 훨씬 큰 일본과의 FTA는 미루면서 영동한 국가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벽 없는 소 축사도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된다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5월 국회 제출 예정

앞으로 축사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축사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해 일부 한우농가에서 있었던 자금차입에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5월 국회에 벽이 없는 소 축사에 한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해 제출할 예정이다.

사방 외벽이 없는 축사는 등기할 수 없다?

2005년 2월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1086호는 예규상 축사는 지붕과 함께 반드시 사방이 벽으로 구성돼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돼지, 닭과 달리 사육 특성상 한우를 기르는 축사는 예규의 ‘축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지속되는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자금부족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을 들여 건축한 축사가 제대로 된 세금을 내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는 사육특성상 외벽 불필요

소는 소화과정에서 다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하여 환기를 위해 축사는 반드시 벽을 트고 소를 사육해야만 한다. 만약 환기가 되지 않으면 소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한우의 품질로 직결돼 한우농가에 제2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 소는 사육의 특성상 외벽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농림수산물 품부가 배포하는 축사표준설계도에도 외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밖에도 한우농가는 축사를 건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현 예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5월 국회 제출 예정

최근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부동산등기제도를 개선해 한우농가의 민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일정규모 이상 축사에 대해 건물로 인정해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 회의를 갖고 축사규모를 논의하고 특례법을 제정하여 50마리 이상 키우는 전업축산농가 내 1500여동의 개방형 축사가 새롭게 등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사 및 부속건물도 등기 고려해야

축사 등기에 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의 담보 이용, 화재나 천재지변 발생시 보상 등에 대한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는 시군 건축대장에 올라가 있는 축사를 등기 하고 축사 및 부속건물(퇴비사, 사일리지 등)을 포함해 연면적 기준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사료가격 전망 및 대책

올 상반기 사료값 안정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사료원료 가격동향

◆ '08.7~'09. 1월 옥수수 선물가격은 44.0% 하락, 도입시차와 환율 영향으로 원화기준 통관가격 오히려 26.8% 상승, 대두박 원화기준 통관가격도 29.5% 상승

▶ 선물가격이 통관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운송 시차 등으로 5개월 정도 소요

◆ 국제곡물가격은 '08년 10월 이후 곡물수급 개선, 세계적인 경기침체우려, 달러강세 및 유가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향 안정세 형성

• '08년 배합사료 가격은 46%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

▶ 옥수수 국제가격 : ('08.1)316\$/톤 → (6)383 → (10)231 → (12)188 → ('09.2.13)208

▶ 해상운임 : ('08.1)97\$/톤 → (6) 127 → (10)44 → (12) 29 → ('09.2.13)42

사료 가격동향

◆ 최근 환율상승과 고가 구매원료 사용(3~6개월 이전 구매)등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원가 상승으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 발생

- 일반사료업체는 12월 중순에 사료가격을 9~11% 인상하였고, 농협은 12월말에 사료가격 인상 10%를 통보하여 1.5일부터 적용

▶ 옥수수 국내도착가격 : ('08.1월)262\$/톤 → (6)304 → (10)323 → (1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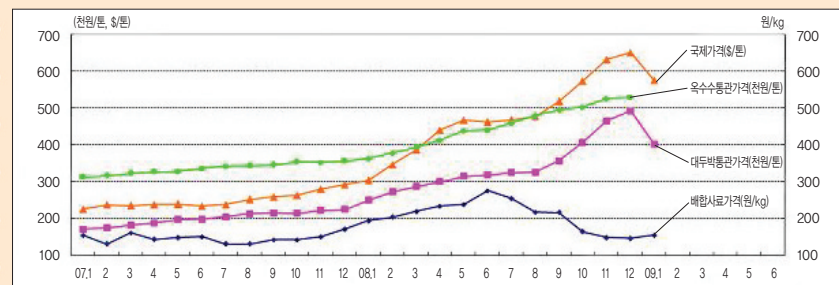
▶ 환율 : ('08.1)942원/\$ → (6)1,029 → (10) 1,327 → (12월)1,374 → ('09.2.13)1,395

〈표1〉 배합사료 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kg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우	306	319	330	349	356	359	370	399	413	418	438	442
젖소	344	360	371	389	408	406	423	446	460	472	489	494
돼지	427	438	454	477	506	506	535	550	571	579	594	608
닭	342	358	384	399	437	442	458	469	474	493	520	528
평균	362	377	392	412	437	439	458	479	493	502	525	529

〈표2〉 옥수수 대두박 / 배합사료



사료 가격전망

◆ '08년 10월 이후에 구매한 곡물이 국내 도착(2월)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에는 사료가격 인하가 전망됨

- 농협사료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09.2.9부터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5% 조기 인하하였으며, 2.12일자 로 일반사료업체인 카길에그리퓨리나도 5% 인하함으로 대한제당, CJ, 천하제일 등 타 업체도 인하할 계획임

▶ 도드람 B&F는 1.19자로 양돈용 배합사료 5% 인하

• 앞으로 3~4월경에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등을 고려할 때 5~10%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NEWS |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제4대 회장에

남호경 현 회장 당선

전국한우협회는 2월 18일 대의원 총회 및 제4대 회장선거를 개최해 남호경 현 중앙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행사가 열린 2월 6일, 한우 8개 브랜드와 일본 요네자와비프의 화우가 진열, 시식되었으며 상호간에 육질을 비교분석하고 한우 고급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시식 결과 화우는 한우보다 마블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우는 특유의 풍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개시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 제출해야

지난 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 추진 계획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한다고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가 밝혔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고급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며 품질의 지표가 되는 등급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소를 출하하는 경우 이력제 마들록우는 '09. 6. 21까지는 '소생산지 확인 증명서'를, 이력제 등록우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러나, '09.6.22부터는 반드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영화 '워낭소리'로 한우 관심 급증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인기몰이 중이다. 40년이 넘는 소와 최 노인의 이야기를 엮은 '워낭소리'는 거짓이나 술수, 잔피를 모르는 정직한 노동과, 농부와 소 사이의 진정어린 소통을 통해 작지만 가슴 뭉클한 위안을 주고 있다.

한국 최초로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부문에 진출한 <워낭소리>는 경쟁부문의 총 4회 상영을 통해 미국 관객들마저 웃기고 울리며 한국 다큐멘터리의 가능성과 우리 한우의 진면목을 알렸다.

...

한우와 화우의 맛 대결

한국농업전문대학교에서 한우와 화우가 맛대결이 열렸다. 한우와 화우 시식회는 한국농업대학 '한우 가치혁신 MBA' 과정 제1차 과제평가' 대회를 통해 일본명품브랜드 생산자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우와 화우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한우와 화우의 맛을 비교해 보는 시식회를 열었다.



비매품 제5권 제2호 통권 제40호
등록번호 114-82-61108
발행 2009년 1월 20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빌딩3층
Tel) 02-522-4292~3 /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 Fax) 02-525-1054
디자인 및 제작 대행 (주)지벨라스 02-3443-8252

www.hanwooboard.or.kr
www.ihanwoo.org